

[성명서]

##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내자

지난 제33차와 34차 두 번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자행된 조직적이고 계획된 단상점거, 신너 살포 등 극단적인 폭력행사로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KT노동조합은 작금의 폭력 사태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운운하며, 이념과 정파적 문제로 돌려 본질을 호도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조합원과 노동운동의 대의를 팔아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철저히 배척되어야 하며 응징 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노총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자 집행기구인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무력화된 점이다.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공간으로, 그 대표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

KT노동조합은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 회복과 대의원대회의 정상적 개최를 위해서 현 폭력사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 길만이 민주노조운동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적 위기를 극복하여, 단결의 기풍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서 전 조직의 결의와 실천을 통해 조직의 민주성과 대의원들의 대표성이 회복되어야 하며,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을 걸고 전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총화되는 결연한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의원대회는 70만 민주노총을 지탱하는 근간으로 그 민주성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 사수를 위해 KT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역량을 집결할 것임을 결의하며, 민주노총 전조직의 비상한 결의와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2월 15일  
KT노동조합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원 의사표시**

회사는 2월 17일(오늘)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의결권 행사시 노동조합 이병훈후보에 대한 의사표시 활동을 펼치고, 전체 지부장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직접 주총에 참석하여 의사표시 투쟁을 전개한다.

KT의 사외이사는 8명이며 오는 3월이면 2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2005년 주총에서 교체예정 사외이사는 ▲ 임주환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 슈트어트 솔로몬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이다.

회사는 새로운 2005년 사외이사 후보로 ▲ 슈트어트 솔로몬 (메트라이프생명 사장) ▲ 곽태선 (현 세이에셋코리아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내세웠고, 노동조합은 사이이사 추천 후보로 ▲ 이병훈 (현 중앙대학교 교수)을 선임했다.

우리사주조합원께서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이병훈 후보에게만 주식을 위임해주시고, 지부장 및 대의원께서는 우리사주조합 의결권행사시 본인 위임을 통한 직접행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사주조합원 의사표시 >

■ 의사표시 기간 : 2005.2.17(목) ~2.24(목) [8일간]

■ 표시방법

▶ **조합원 대상** : 집중투표시 이병훈 후보 만주식수 기표(양식 1)

☞ 예) 본인 주식이 400주일 경우 이병훈 후보란안에 일반투표시란에 찬성기표 후 집중투표시란에 1200입력 [집중투표는 개인별계정 소유주식수 x 3(선임예정 3명 이사수)]

▶ **지부장 / 대의원 대상** : 직접행사

▪ 우리사주조합 의결권행사 본인 위임요청서 (양식 2)

▪ 우리사주조합원 의결권행사 위임장 조합장이 발송(양식 3)

☞ 양식 3은 양식 2에 의한 청구시 우리사주조합장이 답신해오는 양식으로 개인소유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조합원에게 위임함을 의미합니다.

##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개최

21일 강북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 전국지방본부 대의원대회가 힘차게 개최된다.

이번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과 조직개편 등 2005년 중요한 현안문제를 지재식위원장이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지방본부별 현장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본부별 대의원대회 개최 일정이다.

▲2월 21일: 강북지방본부 - 여의도지점 3층 강당 (10:00), 강원지방본부 - 본부1층 대회의실 (13:30)

▲2월 22일: 강남지방본부 - 본부7층 대회의실 (10:00), 서부지방본부 - 서부망건설국 회의실 (13:30)

▲2월 23일: 전남지방본부 - 지리산수련관 대강당 (09:00), 전북지방본부 - 본부3층 대강당 (13:30)

▲2월 24일: 대구지방본부 - 본부4층 강당 (10:00), 부산지방본부 - 본부6층 회의실 (15:00)

▲2월 25일: 충남지방본부 - 도고수련관 대회의실 (10:00), 충북지방본부 - 본부8층 회의실 (13:30), 본사지방본부 - 본사 대강당 (16:00)

▲2월 28일: 제주지방본부 - 본부 대강당 (14:00)

## IT 연맹 회원조합 확대간부 수련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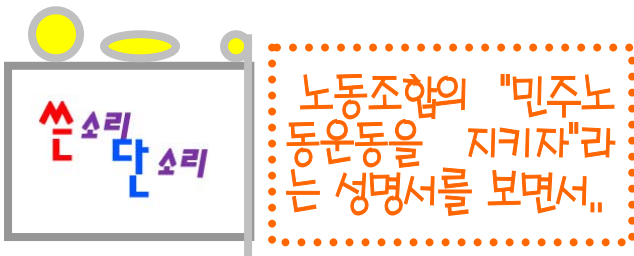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05년 연맹의 전망과 발전방향등 핵심사업에 관한 폭넓은 토론과 각조직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회원조합 확대간부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했다.

가. 일 시 : 2005.2.16 ~ 17 (1박2일)

나. 장 소 : 진산 자연 휴양림(충남 금산)

다. 주요내용

- 1)연맹 2004년 사업평가 및 2005년 사업계획 토론
- 2)2005년 노동계 주요현안 및 정세토론
- 3)IT산업 발전방향 및 전 조직 현안 공유
- 4)2005년 임단투 관련
- 5)기타



[출처 : 전사판(2005-02-16)]

작금의 현실이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조합간부 비리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극단적인 폭력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나도 한 명의 조합원으로써 일부 노동조합 단체의 불미스러운 잘못이 모든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듯이 바라보는 것은 위험한 시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한다.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그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KT노동조합

은 더욱 더 그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듯 일부 언론에서 민감하게 보도하는 바는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노동조합은 도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으로 작금의 사태를 일어나게 한 사태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은 반성을 해야 하며 당연히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의 형태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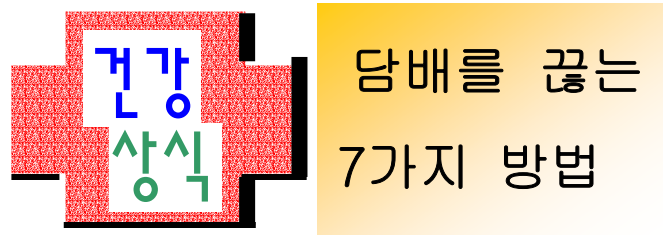
그렇게 될 때만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무엇인가 질타하는 다른 집단에게도 자신있게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것을 다시 또 한번 한다면 그것은 헤어날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KT노동조합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조직인 만큼 조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출처 : <http://www.healthkorea.net>]

'술'은 끊겠는데 '담배'는 끊기 어렵다는 사람을 흔히 보게 된다. 이는 담배로 인한 중독이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사람이 가장 즐기는 기호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를 피우는 성인 남자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마치 흡연을 성인이 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경향이 바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해로운 약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는 흡연자 자신에게 일종의 약물중독과 같다.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다.

미국의학 협회에서는 담배를 마약과 같이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담배는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원이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가진 아내는 폐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0%나 증가한다.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는 감기가 걸릴 확률이 3배나 증가하고, 합병증으로 입원할 확률도 2~3배 증가한다.

폐기능이 떨어지고, 천식도 악화된다. 담배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기관지염, 심이지장궤양, 고혈압 등 담배와 관련이 있는 병을 앓게 되면 이 때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셋째, 결심을 굳게 하고 금연일을 정하자. 흡연이 약물중독이기는 하지만 굳은 결심만 있으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결심을 하면 즉시 '금연일(담배를 끊는 날)'을 정하자. 금연일은 대개 7~10일 후로 잡는 것이 좋다.

너무 뒤로 잡으면 마음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은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앞두고 금연일을 잡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넷째, 담배를 끊는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공포하자. 담배를 끊는 데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금연에 실패하면 창피할까 봐 주위에 말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혹, 금연을 방해하는 몰지각한 동료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하나 알아 둘 것은 한번에 담배를 끊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금연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번에 걸친 실패를 경험한 재수생이다.

다섯째,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 즉 재떨이, 담배,ライター 등을 아예 버리는 것이 좋다.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라이터를 떼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 담배를 끊은 후에는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여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회식이다. 이 때는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금연 후 2~3주간은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금단증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금단증상이란 담배를 끊은 후 나타나는 불안, 초조, 집중력장애, 불면 등의 증상을 말한다. 이런 증상은 중독과 비례하여 심해진다.

금단증상은 금연 후 3~4일에 가장 심해지고 2~3주 후면 없어진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만 이런 증상을 잘 조절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은단 씹기, 무가당 껌 씹기, 찬 물 마시기, 양치질 등도 도움이 된다. 다만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일곱째, 약물사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단 증상이 심한 경우에 이를 완화시켜 주는 약물로 피부에 붙이는 니코틴패취와 니코틴 껌 두 종류가 있다.

이 약물은 적은 양의 니코틴을 공급해 주어서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약 물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다.

이 약물은 자동적으로 담배를 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도와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심장질환, 임신 등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말에 떠나는

문 화체험

대둔산 산행과

겨울딸기여행

[출처 : <http://www.darotv.com>]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계절이 모두 떠나기 좋은 계절이겠지만 계절을 가려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래도 세상을 하얗게 수놓고 소복히 쌓여가는 눈. 바로 설경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또한 설경하면 뭐니뭐니해도 산 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으니 겨울을 기다린 '상동객'들이라면 이미 마음은 겨울산에 있을터.

겨울산의 매력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대둔산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을 통해 겨울산행의 진수를 맛보고 축성재배한 딸기밭에 들러 싱싱한 딸기내음에 취해보고 고즈넉히 자리한 논산 쌍계사에 들러 산사의 겨울 풍경도 마음에 담아오는 시간을 가져 본다.

- 대둔산 - 논산 쌍계사 - 논산 딸기체험 - 카페정보

## 6주간KTTU

대둔산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붙는 수식어는 아무래도 '호남의 소금강' 또는, '한국의 8경'이다.

대둔산은 남으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서북으로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동으로 금산군 진산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대둔산의 매력이라면 뭐니뭐니해도 기암들이 향연을 이루고 있다는 것.

문외한들에게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면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한국의 8경'으로 불리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인지 대둔산의 등산로는 어디 코스를 통해 오르던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는 곳이 바로 완주방면의 등산로이다. 능선을 따라 즐비한 기암괴석들이 이곳을 소금강으로 불리우게 한 장본인들이다.

이곳에는 케이블카가 운행중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과정은 또한 대둔산을 둘러보기 전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인데, 안내방송을 통해 나오는 '대둔산의 이모저모' 잘 들어두면 대둔산을 처음 오르는 사람들이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케이블카가 내리는 곳엔 산행의 출발점격인 팔각정이 위치하고 있다. 잠시 산아래로 펼쳐진 경치를 감상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미 케이블카를 타고 산중턱쯤에 오른 이상 처음이라고 만만하지는 않다.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금강다리' 높이 70m, 길이 50m, 폭 50cm의 구름다리로서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이어준다.

가끔 길을 돌려 이곳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 주의사항 한가지. 이곳은 일방통행길이다. 멋진 사진 한장이 아쉬워 내려오는 길에 들려볼 생각이 라면, 오르는 길에 마음껏 찍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금강구름다리를 배경으로 멋진 겨울 풍경을 담았다면 이제 다음 코스는 '삼선계단'. 눈썰미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계단이 45도가 넘는 경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하지만 계단을 올라 턱까지 차오는 숨을 고르고 나면 발 아래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에 차오르던 숨은 어느새 탄성으로 바뀌어 있다.

팔각정에서 보았던 산 아래 풍경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풍경이 펼쳐진다.

여기까지 오르고 돌아가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기왕 올라왔다면 정상인 마천대를 어찌 빼놓고 가랴.

잠시 쉬어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고 다시 발길을 재촉하면 이제부터는 대둔산의 숨겨진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아기자기한 바위들이 이루어 놓은 산의 풍경은 어느 계절에 와도 좋을 듯싶지만 함께 오르는 등산객의 말을 빌리면 겨울에 오르는 대둔산이야말로 사계절 중 으뜸이라고 한다.

이제 그 으뜸격인 겨울산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다시금 산을 오르다 보면 저만치에 하늘과 맞닿을 듯 한 곳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대둔산의 정상 마천대이다.

원효대사가 하늘과 맞닿았다는 뜻으로 이름 붙였다는 이곳에 오르는 순간 과연 대사의 눈이 정확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머리 위로는 파란 하늘이 발 아래로는 사방으로 뻗은 산줄기가 이곳이 산의 정상임을 말해준다.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물색하거나 목청높여 외치는 '야호~' 소리에 다시금 이곳이 대둔산의 정상 마천대임을 확인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지식검색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묻고 답해주나 하겠지만 가끔, 정말로 사소하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게 마련...

한국에는 쌍계사가 몇군데 있나요? 라고 지식검색에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글쎄...한 9군데 정도... 많은 사람들은 지리산의 쌍계사를 떠올리겠지만 논산에도 엄연히 쌍계사가 자리 하고 있다.

논산 쌍계사는 고려 초기 혜명이 창건한 절이다. 경내로 들어서면 보물 제408호로 지정된 대웅전이 눈에 띈다.

사찰이라면 다 있는 대웅전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쌍계사의 대웅전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남는 것이 많은 곳이다.

먼저 대웅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꽃살무늬창살'이다. 말 그대로 창살하나하나에 꽃살무늬를 장식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예술이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는터.

처음 볼때보다 보면 볼수록 깊이가 묻어나는 불교 미술의 단아함을 이곳 쌍계사의 꽃살무늬창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냥 지나치면 못내 아쉬울 것이 대웅전을 받들고 있는 '첨기둥'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첨나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크기에 놀라고, 이 첨기둥을 만지면서 기원을 하면 고통없이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극락으로의 길을 빌며 첨기둥을 만져서 인지 윤이 날 정도로 반반하다. 첨기둥 앞에서 고통없는 죽음을 기원하였다면 다음으로는 대웅전 왼편의 관세음보살상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입상을 자세히 보면 얼굴과 목 부분이 유난히 하얗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이 부분은 젖지 않는다고 한다.

의심많은 여행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 확인하고, 예를 갖춰 절을 올려보는 것도 산사에서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래전 한번쯤은 들었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로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 중에 딸기를 먹고 싶은 어머니를 위해 엄동설한 추위를 마다않고 딸기를 구하러 산으로 가는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정말 옛날 이야기다. 겨울철 과일은 누가 뭐래도 쿨이겠지만 이젠 딸기라고 해도 틀

린말은 아닐 것 같다.

특히, 논산에서 만큼은. 입영열차의 종착지 논산에서 매향딸기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매향딸기를 통해 논산을 기억해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구??? 맛있으니까! 바로 그 매향딸기를 직접 딸수 있는 곳이 논산 양촌면의 딸기 비닐하우스촌이다.

비닐하우스 안의 후끈한 열기와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들이 오히려 겨울임을 느끼게 해주는 딸기 하우스 안에는 논산 시험장에서 재배한 우리나라 유일의 품종인 매향딸기가 여행자들을 맞는다.

이름에서 처럼 향은 물론이고 입안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당도 또한 다른 딸기와 비교를 거부하는데. 일단 하나를 맛보고 나면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어, 어느새 여기저기서 딸기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축성재배를 통해 11월에서 이듬해 4,5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니, 딸기 마니아들의 겨울철 딸기 걱정은 이제 끝.

### Tip) 맛있는 딸기 고르는법

딸기의 품질은 품종보다는 재배환경, 수확시기, 수분함량등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외형적 특질은 과실전체가 선홍색으로 선명하고, 윤기가 나며, 표면의 씨가 균일하게 배열되어 모양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꽃받침이 과일과 반대 방향으로 젖혀지고 싱싱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과실의 보관성을 좋게하려면 구입당시 만져보아 탄력성이 좋아야 하며 수분함량이

많아 무르거나 끝부분이 연화되지 않은 것이 좋으며 딸기의 독특한 향기도 상품 선택의 기준이 된다.

주소 : 충남 논산시 내동 824 논산시청 농정과

전화 : 041-730-1385, 011-405-1096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먹거리.

거기에 더해 분위기까지 좋은 곳에서 한끼 식사와 따뜻한 차 한잔을 곁들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있겠는가.

대둔산을 내려와 쌍계사, 딸기농장까지 들르고 나면 시간은 어느 덧 어스름 석양을 맞이하게 된다.

이 석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 곁에 전원카페 ‘에땅’이 자리 잡고 있다.

분위기에 취해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통나무로 지어진 정겨운 카페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푸짐한 저녁거리와 따뜻함이 묻어나는 차 한잔. 그리고 창 너머 낙조 속으로 지는 하루의 짧은 여정.

이 모든 것이 겨울의 풍경이 되는 곳이 바로 전원카페 ‘에땅’이다.

마당에는 널판과 그네가 겨울 풍경을 더욱 정겹게 해주고 있다.

주소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560-3

전화 : 041-741-9998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